

홍천실버신문 100호 발행 기념을 축하하며



홍천군수 신 영 재

어르신들의 눈과 귀가 되어 온 홍천실버신문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애써 주신 홍천실버신문 발행인인신 현운재 홍천군노인복지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지역사회 소식을 알리기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쉬지 않고 달려오신 실버신문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천실버신문은 그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하며 사랑과 신뢰받는 신문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어르신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지역 곳곳을 누비며 밀착취재를 통해 알려 주시고, 홍천을 홍보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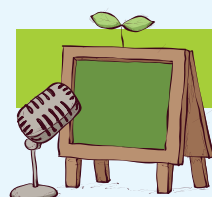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걸어오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 주시며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과 더 큰 즐거움을 주는 신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백세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홍천실버신문 1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면서, 어르신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홍천군수 신 영 재



인터뷰

“어르신들의 벗 홍천실버신문 100호 축하!”

‘어르신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한 본보’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무궁한 발전 기대’

홍천실버신문 100호 발행기념 특별 인터뷰에 응한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실버신문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인터뷰 첫 마디에 말했다.

6·1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 1일부터 홍천군수 집무를 시작한 신영재 군수는 “늘 어르신들 곁에서 알찬 정보와 다양한 지역사회소식을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이어 “홍천실버신문이 오랜 시간 어르신들에게 사랑받고, 어르신들과 同苦同樂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르신들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신영재 군수는 “앞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유익한 소통 채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탁도 잊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참여 확대로 ‘군민이 주인 되는 홍천시대’ 열고 어르신들의 건강·편의 증진과 ‘효행장려수당 지급’ 추진

신영재 군수는 “홍천군은 어르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예우확대의 감동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처우개선으로는 노인일자리를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께 경제적 자립의 도움과 자존감 고양으로 노후 행복감을 누리시도록 역량을 함양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신영재 군수는 본보 100호 기념 인터뷰에 맞춰 경로당 개선과 효행장려수당 지급 계획도 밝혔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익을 고려하여 경로당에 맞춤형 입식탁자와 의자 제공, 자동 물 내림 시트를 설치하고, 효행장려수당 지급과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 사상을 독려하겠다.”며 어르신 존중 정책을 밝혔다.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철도시대 산림자원·식품자원·농공단지 등 무궁무진

신영재 군수는 홍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로 정했다.

이에 대해서 신영재 군수는 “강원도의 중심에 위치한 홍천군은 중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산림 면적과 400리 홍천강이 흐르는 잠재력이 큰 도시이다. 그 동안 저평가 받았던 홍천군의 가치를 끌어 올려야 할 때이다.”라며, “전국에서 제일 넓은 산림면적을 활용한 탄소배출권을 대처할 수 있는 ESG경영을 추구하고, 신토불이 장터와 먹을거리 시장 활성화로 살맛나는 홍천시장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홍천국가항체 클러스터사업을 시작으로 첨단사업을 육성하고, 홍천철도시대를 대비해 식품산업중심 농공단지를 확대하는 등 양질의 신규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겠다.”며 “홍천군의 가치

를 끌어올리면 홍천은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감을 피력했다.

시대 흐름과 어르신들 기대에 부응하는 홍천실버신문 ‘군민이 주인 되는 홍천시대’에 더 큰 역할 기대돼

신영재 군수는 “어르신들을 대변하는 홍천 유일의 신문 홍천실버신문에 기대가 크다.”면서 관심을 표하고, “IT기술 발달에 따라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어르신들의 욕구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홍천실버신문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는 당부와 “어르신들과 함께 소통하는 신문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는 덕담도 했다.

신영재 군수는 인터뷰 말미에 “홍천실버신문 100호 발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면서 “구독자와 어르신들은 홍천실버신문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시는데, 구독자와 어르신들의 다양한 이야기도 지역에 전달이 되도록 소통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삶의 지혜가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도록, 홍천실버신문이 ‘생동감 있는 취재와 읽고 싶은 기사 작성’을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홍천실버신문을 만드시는 분들, 구독자여러분, 홍천군 관내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린다.”고 인사를 마친 신영재 군수는 “‘군민이 주인 되는 홍천시대’를 펼 때 홍천실버신문의 역할도 더욱 빛이 날 것이다. 모두 함께 주인 되자.”며 활짝 웃었다. 허남영 기자(hny1985@naver.com)

어르신들의 행복을 전달하는 알찬 정보지로 자리매김 하시길



홍천군의회 의장
박영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의회 의장 박영록입니다.

울창한 녹음이 푸르름을 선사하는 신록의 계절에 어르신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공유와 다양한 지역 소식을 담은 「홍천실버신문」의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르신 복지에 앞장서 오시면서 홍천실버신문 발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홍천군노인복지관 현운재 관장님과 홍천군 노인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기자로 구성된 홍천실버신문이 2014년 5월 제1호 창간을 시작으로 어느덧 1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는 홍천실버신문은 삶의 활력이 되는 여러 정보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나눔을 담은 소식지로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직접 기자로서 열렬하게 취재, 원고작성 등

에 참여하셔서 신문을 구독하시는 군민들께서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게 된 저희 9대 홍천군의회에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을 생각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홍천실버신문 창간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을 전달하는 알찬 정보지로서 자리매김 해주시길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홍천군의회 의장 박영록

홍천실버신문의 앞날이 번창하기를



법인대표이사
해량

귀의삼보하옵고,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 발행하는 홍천실버신문 창간 100호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잠시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지내길 간절히 바라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각양의 어려움은 세계가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사이의 관계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야 한다는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본래 불교에서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이치 또는 가르침을 뜻하는 말로서 불가사의(不可思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처럼 끝이 없고 그 법(法)인 몸은 불가사의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몸이나 지혜·가르침은 불가사의하여 중생의 몸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도 합니다.

홍천실버신문 구독자 그리고 홍천군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바로 보는 의식을 바로 가질 때, 업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업을 부리며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일 부처님의 말씀 따라 우리 모두는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힘입게 됩니다.

홍천실버신문의 앞날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삶에 자비(慈悲)와 행복(幸福)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대표이사 해량 합장

함께 발전하며, 모두가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운영위원장
신동천

홍천실버신문 구독자 여러분!

옛그제 희망찬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하여 홍천실버신문을 통해 새해인사를 전달하였는데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입추(立秋)라는 절기를 맞이하고 보니 지난 여름의 폭염이 무색하듯 선선한 가을바람이 아삭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여름 끝자락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폭우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폭우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의 흐름이 참 빠릅니다.

2014년 5월에 홍천실버신문이 창간호를 맞이하였는데 어느덧 홍천실버신문 100호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홍천실버신문을 매개로 홍천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기사화하여 지역의 어르신께 성심성의껏 전달하는데 가교역할을 하는 실버신문 기자분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인생과 사회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비전으로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상담서비스, 노년사회화교육 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홍천군 노인복지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는 홍천군노인복지관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매월 1회 홍천실버신문을 발행함으로써 특히 홍천읍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면단위 거주 어르신들에게도 지역소식을 비롯하여 경제, 문화, 복지, 취미,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선택적 정보수집이 용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버신문 구독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홍천실버신문 구독자 여러분!

2022년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며, 모두가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홍천실버신문의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홍천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신동천



강 정 식

시인, 전 홍천문화원위원장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현운재)에서 발행하는 신문지령이 100호를 맞았다. 그 동안 매월 한 번도 결본 없이 발행된 것에 대하여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린다.

홍천군은 인구가 7만여 명이고 그 중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약 16,000여명이 살고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대대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귀촌이나 귀향하신 분들도 많다. 필자도 토박이로서 70여년 살아왔다.

(現)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이곳은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이전까지는 민간인 출입 금지 군사 구역이었다. 이곳에 사는 농민이나 농지(農地)를 가지고 있는 타 지역 주민들은 출

입증을 군부대로부터 발급받아야 통행이 가능했다. 이곳에는 육군탄약부대가 있었다. 출입문은 홍천경찰서 인근(현도로)에 있었다. 1980년대 홍천군 행정타운이 들어오면서 군부대 터를 군청에서 결운리로 이전하고 군부대 터 대부분을 군청에서 매입했다. 일부는 농민에게 반환했다. 행정기관으로 홍천경찰서와 국토유지관리사무소가 이전했고 이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지은행과 농어촌공사 국민의료보험공단 홍천지

필자는 창간호부터 빠짐없이 구독을 했고 실버신문의 변화를 지켜봤다. 그 동안 어려움도 더러 있었으나 슬기롭게 잘 견뎌냈고 기자들도 여러 명이 교체됐다.

필자의 경우는 기고문을 자유투고로 몇 번 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는 인물탐방에서 김정현 기자의 대담으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난다. 2022년 8월 지명제 99호에는 역시 인물탐방으로 안태수 실버기자가 취재한 “세계문학상 수상작

나같이 노인들에 대해 친절하다. 노인들이란 한번 배워도 곧 잊어먹고 행동 거지도 부자연스럽다. 박봉의 보수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무한봉사정신은 앞으로 오래오래 갈 것이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의 슬로건인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노인복지회관은 취미교실반도 30여 개가 된다. 필자의 경우 바둑반에 속해 있다.

단, 하루라도 수답을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거의 중독되다시피 하였다. 춘천 및 외지에 방문하다보면 노인회의 바둑반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의 현운재 관장님은 젊고 유능한 실무형 관장으로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홍천군 노인복지관은 향후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홍천실버신문 또한 좋은 기사로 노인복지관의 모든 업무를 알리고 회원들의 활동상을 찾아서 기사화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홍천실버신문 100호 지령을 축하하며 신문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현운재 관장과 편집관계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홍천실버신문 100호 발행 축하

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들어섰다. 2천년대 들어오면서 장애인복지관과 홍천군노인복지관이 연이어 들어왔다.

인근에는 행정타운 이외에도 체육시설로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고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 궁도장, 양궁장 등이 건설됐다. 인근에 홍천군 공설운동장이 건립돼서 홍천군 최초로 강원도 체전을 개최한 바 있다. 홍천실버신문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10여년동안 지켜보며 보도를 했다.

가 방문기”를 실은 바 있다. 두 번 다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천실버신문은 홍천군 노인복지관의 얼굴이다. 비록 한 달에 한 번 발행하지만 실버신문 기자들의 활약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이 살아있는 기사로 생생하게 쓰고 있다. 홍천군내 200여개의 노인회관 소식과 우수마을탐방, 역사탐방, 노인들의 건강·취미, 실비 중식제공 등 봉사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

게이트볼

‘홍천군노인복지관장배 게이트볼 리그전’ 개최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22년 8월 20일부터 23년 4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홍천군노인복지관장배 게이트볼 리그전을 실시한다. 홍천관내 게이트볼 회원과 노인복지관 게이트볼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대회참여를 통한 어르신들과 회원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2022년 8월 20일(토)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기에 참여하게 될 팀은 홍천군노인복지관, 개운, 와동, 풍암, 송화, 연봉, 중화계, 자은, 철정, 상화계, 굴운, 오안으로 총 12개 팀이 모여 4팀씩 총 66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2023년 4월 22일 1, 2위전을 가르는 챔피언 경기가 이루어지고 폐회식(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이번 게이트볼 대회는 외부 클럽을 초대하여 이루어지는 경기로 게이트볼 홍보 및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게이트볼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맞춤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관계향상프로그램 “어울림” 어르신 호응 높아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10명~15명 어르신과 함께 각 면으로 찾아가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내촌면과 영귀미면은 신체 및 인지프로그램, 화촌면은 원예프로그램, 두촌면은 목공예프로그램, 서석과 내면에서는 체험활동으로 참여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과 교류 활동을 하고 우울감 등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한 어르신은 “투박한 손이지만 그리고, 칠하고, 오리고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뿌듯하고 운동할 땀 아픈 다리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 청춘이 따로 없다”라고 소감을 전하였고, 원예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집에만 있어 우울하고 답답했는데 꽃향기를 맡으며 내 손으로 꽃을 꽃고 꽃바구니를 만들다 보니 기분이 훨씬 좋고 아름다운 꽃을 보니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으로 읍면사무소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안전·안부확인	방문, 전화, ICT를 통한 생활안전점검 및 정보제공, 말벗서비스 제공
사회참여	대상자가 타인과 교류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생활교육	건강, 폭염·한파 대비 요령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교육 제공
일상생활지원	중점대상자에게 외출동행, 가사서비스 제공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연계



◇내면과 서석면 체험활동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



◇목공예활동



◇원예활동

이동복지관

-함께해요, 우리마을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교통 불편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복지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내촌면, 서석면, 내면 지역의 어르신들 직접 홍천군노인복지관으로 송영하여 노년기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제공과 사회복지정보 제공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인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이동복지관-함께해요, 우리마을』 사업을 6월~12월까지 진행한다.

이동복지관 함께해요, 우리마을 사업은 총 15회기로 진행되며 현재 7회 정도 진행됐으며 홍천군 내촌, 서석, 내면 각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 직접 복지관 버스로 송영하여 노인복지관에서 점심 식사 후 치매·인지예방프로그램, 반려식물 공기정화 가드닝 심기, 냅킨아트만들기, 웃음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치매인지보드게임은 뇌의 자극과 트레이닝으로 인지능력이 향상되며 냅킨아트만들기 및 반려식물심기는 소근육, 삶의 활력과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에는 내촌, 서석, 내면 각 면 소재지 복지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일정표

7회기	내촌면	08. 24(수)	12:00~12:20	중 식	치매·인지검사/ 혈압·혈당체크/ 기능회복
			12:20~14:20	인지보드게임	
			14:20~16:20	토탈공예(냅킨아트)	
8회기	서석면	09. 14(수)	12:00~12:20	중 식	
			12:20~14:20	인지보드게임	
			14:20~16:20	토탈공예(냅킨아트)	
9회기	내 면	09. 21(수)	12:00~12:20	중 식	
			12:20~14:20	인지보드게임	
			14:20~16:20	토탈공예(냅킨아트)	
10회기	내촌면	09. 28(수)	12:00~12:20	중 식	
			12:20~14:20	인지보드게임	
			14:20~16:20	토탈공예(냅킨아트)	
11회기	서석면	10. 12(수)	12:00~12:20	중 식	
			12:20~14:20	인지보드게임	
			14:20~16:20	토탈공예(냅킨아트)	
12회기	내 면	10. 26(수)	12:00~12:20	중 식	
			12:20~14:20	인지보드게임	
			14:20~16:20	토탈공예(냅킨아트)	



"추석명절맞이" 구독자N행시 이벤트

1. 송편



2. 가족



3. 선물



참여방법 : 제시어 3가지

한가지를 선택하여 N행시를 지어주세요.

접수기간 : 9월 13일(화)~23일(금)

접수방법 : E-mail(hcknowin2@hanmail.net)

문의 : 배영민 사회복지사(033-430-8718)

* 참여해 주신 분들중 10명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나누는 기쁨, 커지는 행복"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는 도움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지친 어르신의 어깨에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자원봉사자님의 귀한 손길과
발걸음으로 홍천지역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도시락배달 / 매주 금, 10시~

북방면 홀몸어르신께 따뜻한 도시락 전달, 말벗 나눔

경로식당배식 및 잔처리 / 매월 셋째(수), 10~13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배식 및 잔처리 봉사

문의 : 김서연 주임(033-430-8717)

노인인식개선캠페인

『노인인식개선 슬로건 & 5행시 공모전』 시상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가족의 중요성과 효(孝)사상을 드높이고, 노인공경문화에 대해 되새기고자 홍천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두 달간 실시한 『노인인식개선캠페인 슬로건 및 5행시 공모전』에 심사과정을 거쳐 08.10(수) 16시 노인복지관에서 시상식을 하였다. 슬로건과 5행시공모전 각 분야로 이뤄진 이번 시상식에는 아동부 3명, 청소년부 4명, 성인부 4명, 장년부 4명으로 8세에서 70세에 이르기까지 총 15명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노인인식개선캠페인 공모전은 누구나 맞이하야 되는 '노년'을 생각하며, 노인에 대해 당당하고, 밝고, 긍정적이며, 핵가족화 사회에서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